

미쓰비시 시간끌기 안통한다...“한국 자산 압류 정당”

대법원, 상표권·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신청 기각 시민모임 “피해자 발목 잡지 말고 조속히 배상해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자 지역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즉각적인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근로정신대환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약 대법관)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낸 국내 상표권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지난 10일 각각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도 배상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유족 측 법률대리인단은 대전지법에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절차를 신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압류 조치가 부당하며 울

2월과 3월 항고했지만 각각 기각됐고,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재항고에서도 대법원은 압류조치가 정당하며 이를 기각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환영 입장문을 내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는 없다. 미쓰비시중공업은 항고에 이어 재항고에 이르기까지, 도돌이표 압류 확인 불복절차에만 2년 6개월여를 탕진하고 말았다”며 “결과가 뻔히 예상됨에도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절차를 이용해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즉각적인 사죄와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또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판단 이후인 지난 13일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에 이르면 한일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므로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모임은 “지금 일본 정부는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자숙하기는커녕 생트집을 잡고있다”며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 분별 잃은 일을 붙잡고 집착할수록 추해지는 것은 일본 정부일 뿐이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동심으로 빛은 송편 추석연휴를 앞두고 14일 오전 광주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이 송편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취득세 감면 차량 ‘소유권 이전’ 주의보

광주 남구, 지난해 장애인·유공자 28명 3300만원 추정

지난해 광주 남구지역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들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은 뒤, 사후관리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추정금 33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남구는 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적극 강화할 방침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보철용 차량과 생업 활동용 차량을 구입하면 최초로 감면 신청한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면제 받는다.

다만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또는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공동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 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한다.

남구는 관련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차량의 사후 관리를 위해 지난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취득세 감면 차량 383대 가운데 28대가 감면 규정에 위배된 사실을 확인했다. 대부분 1년 이내 소유권 이전과 공동 등록 명목의 세대 분리가 이유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여순사건 진상 규명 위해 시행령 마련해야”

여순사건 토론회 열려, 10월 18일 토론회 후 정부 제안

여순 사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상의 ‘명예회복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여수시 문화홀에서 여수시와 여순사건진상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법국민위원회(이하 ‘법국민위원회’)가 공동주최로 ‘여순사건특별법 제정·공포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10월 18일 제2차 토론회를 거친 뒤 시행령(안)을 마련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 후속 조치인 시행령 마련을 위해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에서 담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을 역임한 장완익 변호사가 맡았다.

장 변호사는 “내년 1월 21일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부칙 규정에 따라 위원회 등 설립준비를 위한 조직이 행정안전부에 설치될 것이고, 설립준비단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표명 등에 관한 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전남도지사 소속의 실무위원회는 ▲진상규명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집행 등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직이고, 실무위원회는 신고 접수 및 희생자와 유족 관계를 확인(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있어서 중요)하는 업무에 적합한 조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여순사건특별법은 사건 발발 73년만인 6월 29일 제21대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고, 7월 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대 ‘전국고교생 웹소설 공모전’

11월 30일까지 접수

광주대학교가 ‘제2회 전국고교생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웹소설 공모전 작품 접수는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제목에는 ‘웹소설 공모전’ 표기를

한 뒤 광주대학교 문예창작과 공식 이메일(mc 2657@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당선작 발표는 12월 24일이다. 판타지와 로맨스, 무협, SF 등 장르와 무관하게 웹소설 공모를 받으며 전국 고등학생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 획득

조선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가 진단검사의학계 단에서 주관하는 진단의학검사실 신임 인증 평가에서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을 획득했다.

우수검사실 신임 인증제도는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 업무의 질 향상을 통해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단검사의학 전문가가 상시 근무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로부터 국제 인증을 획득한 프로그램으로, 우수검사실 인증은 국제적 규범과 표준에 부합하는 진단검사실임을 공인받는 것이다. 평가는 검사실 운영,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검사, 임상미생물검사, 수혈의학, 진단면역검사, 조직적합성검사, 분자진단검사 등에 대한 종합 검증 및 현장 검사로 이루어졌으며, 조선대병원은 각 분야별로 우수한 점수를 받아 높은 수준의 진단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사 범 예 능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정부교육상담학 전공)	31	3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23	6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형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형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